

# 한식당 실내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ior Design Characteristics in Korean Restaurant

정미림, 박영순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Chung Miryum, Park Young-soon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 Key words: interior design, Korean restaurant, formative characteristic

### 1. 서론

실내디자인에서 우리의 것을 다시 찾으려는 노력은 최근 20년간 점점 늘어나 여러 방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전통성을 찾자는 주장 하에 형태만의 고증이나 답습에 한정되거나, 일관성 없이 디자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성의 개념을 조형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 그에 의해 도출된 틀로 가장 한국적이어야 하는 상업공간인 한식당의 실내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형적 측면에서의 전통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문헌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선정된 한식당에서 그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공간 구성과 의장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2. 조사 대상 한식당의 선정 및 조사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으로, 특급 호텔 한식당 10곳과 일반 한식당 10곳을 선정,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의 선정은 대기업 중역, 교수,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실내디자인이 가장 한국적이라고 기억되는 한식당을 묻는 설문조사에 의해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한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 촬영과 스케치, 분석도구에 기입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아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간 구성, 의장 특성, 조형 개념을 분석하였다.

[표 1]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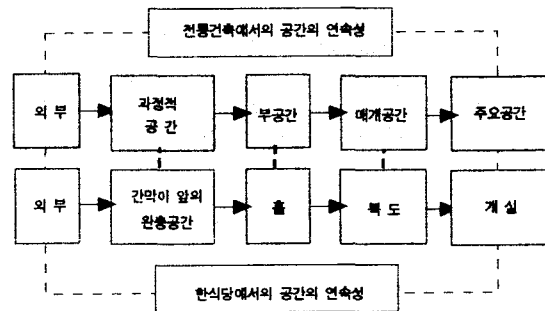
	조사 대상	조사 내용
공간 구성	진입 방식	외부 형태, 출입구에서의 공간전이방식
	각 공간간의 연결 체계	
실내 요소	바닥, 벽, 출입문·창호, 천장, 간막이·간막이벽, 조명, 의자, 장식물	형태, 재료· 마감방법, 색채
조형적 개념		포용성, 관조성, 위계성, 풍류

### 3. 사례 분석 결과

1) 조사된 호텔 한식당과 일반 한식당간의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호텔 한식당은 호텔 건물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비교적 제한되지만, 일반 한식당은 자체 건물을 가지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호텔 한식당에 비해 자유롭고 다양한 배치와 야외조경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호텔 한식당이 일반 한식당에 비해 비교적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 공간구성이나 의장 특성, 개념 표현간의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 한식당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전통적인 연속적 공간 구성이 식당 공간에 맞도록 응용되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즉, 한식당의 공간구성은 대체로 외부에서 간막이 앞의 완충공간, 홀, 복도, 개실로 연속되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과정적 공간, 부공간, 매개공간, 주요공간으로 이어지는 전통건축의 공간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전통 건축에서의 과정적 공간은 내부 공간으로의 전이적이고 과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한식당에서의 입구에서 홀이나 복도까지의 공간이 이에 상응하며, 부공간은 주요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홀의 위치와 기능을 이에 대응시킬 수 있다. 매개 공간은 부공간과 주요공간을 연결하며, 통로로서의 기능과 함께 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한식당에서는 홀과 개실을 연결하는 복도가 이러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식당은 그 연속적 공간구성을 특징으로 하며, 공간의 깊이와 비례하여 공간의 위계가 높아진다.

외부 형태는 전통성을 표현하여 고객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호기심을 조성하였고, 장식벽을 두거나 사선의 통로공간으로 시선을 차단하고 동선을 우회하는 진입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때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 전이를 인지하도록 하였다. 공간 구성



[그림 1] 전통건축과 비교한 한식당에서의 공간의 연속성

은 매개 공간인 복도에서 양쪽으로 부공간인 홀과 주요공간인 개실로 나누어지는 평면 구성과 홀을 통하여 개실로 연결되는 두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3) 한식당의 의장적 측면에 있어서는 전통적 요소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전통 의장요소들을 사실적으로 모사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디자이너의 주관에 의해 변형·응용 또는 단순화·기하학적 형태화하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또한, 홀은 마당과 같은 외부공간, 개실은 실내공간으로 대응시켜 형태를 디자인하고 마감재를 사용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닥은 입식 홀 부분은 카펫, 목재, 석재, 타일로 다양하였으며, 좌식 개실은 대부분 황색의 장판지나 민속장판을 사용하였고 각로식(脚爐式)<sup>1)</sup> 바닥을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벽은 입식 홀이 목재 패널, 방화장, 심벽 구조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 데 반해서 개실은 심벽 구조나 벽지를 바른 소박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출입구와 창호, 간막이는 전통 창호의 형태를 그대로 도입하였으며, 전통적인 실내분위기를 주도하였다. 천장 역시 백색으로 마감한 평천장이나 우물천장, 연등 천장 등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나타내려 시도하였다. 조명 기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였고, 전통 문양이나 토속적 재료로 전통성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의자는 개실에서는 좌식 의자와 방석이 주로 사용되었고, 장식물은 소박성과 담백함을 지향하여 비교적 소량, 소종의 장식물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성의 조형 개념은 조사한 한식당의 공간과 의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포용성은 공간면에서는 감싸는 형태의 공간구성, 간막이벽에 의한 크기의 융통성, 대지굴곡의 수용으로, 의장면에서는 외래 요소들과의 절충성 등으로 표현되었다. 관조성은 공간을 분할하여 소박하고 인간적인 스케일로 조절한 공간과, 전통요소들을 단순하게 형상화하거나 소박하게 장식물 억제한 실내의장에서 발견되었다. 위계성은 거리와 공간의 성격, 높이와 프라이버시의 수준, 마감재에 따라 표출되었으며, 풍류는 정자의 형태와 기능을 가진 공간을 조성하거나 실내 조경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및 제언

1) 한식당 실내디자인에서의 한국성은 전통의장의 조형적 요소들을 사실적으로 모사하여 표현하거나, 응용하여 변형, 절충, 혹은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방법과, 추상적인 조형적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모사적 표현의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해서 고층에 의한 복사적 표현으로 기존의 전통요소에서 담고 있는 한국성을 그대로 포함하였다. 디자인 개념에 의해 적절히 변형된 경우에는 분위기가 어우러져 한국미를 나타냈으나, 전통성에 대한 개념없이 변형된 경우에는 오히려 한식당 자체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한국적 조형성이 추상화와 개념적 요소의 표현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개념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으나 전체 실내 분위기를 한국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이러한 추상화는 복사적 표현에서 넘기 힘든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성을 새롭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길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법도 현대적인 관점내에서 계속 발전시

켜 나가야 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결국, 모사적이든 절충적이든, 혹은 추상화된 것이든, 한국성의 표현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재창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각로식 바닥, 좌식 의장 등 한국적 분위기와 어울리면서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실내 요소들간의 절충적 사용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식당에서는 순수한 전통성만의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현대적 요소들이 얼마나 한국적 분위기에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새로 리노베이션된 한식당들은 일반적으로 밝은 목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밝은 목재를 쓰면 실내가 현대적인 느낌을 주면서 전통성이 표현된 경우도 있지만, 일본적인 느낌이 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적 분위기는 전통적인 형태뿐 아니라 재료, 색채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4) 한식당의 특성상 내부의 거주공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방화장과 같은 형태도 실내에 적용되었다. 이는 홀을 외부공간(마당)에, 개실을 내부공간(실내)에 대응시키는 개념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식당에 응용될 수 있는 전통 요소들의 범위가 매우 폭넓으며, 다양한 응용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결론에 의거하여 제언하면, 본 연구에서는 고급의 한정식집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중·저급의 한식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그들간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계층에 따른 실내디자인과 한국성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다룬 실내 색채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면 앞으로의 한식당 색채계획에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5. 참고 문헌

- 김민정(1993). 한국 전통성 표현의 현대적 접근 방법과 공간 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진희(1997). 호텔 로비에서 한국성에 기초한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12개 특1급 호텔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지. 1997. 10.
- 김영기(1991).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 박영순 외(1998).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 주남철(1981).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 신을 벗고 들어가는 개실에서, 테이블 아래 바닥을 단차를 두어 낮게 하여 의자처럼 앉을 수 있도록 한 것. 연구자주.